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 Summer
Vol.61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 QR코드를 사용합니다.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생명의 속삭임,
물의 가치를
담아봅니다.



푸른 강물의 잔잔함, 바다의 깊은 숨소리
물은 생명의 속삭임입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에게 위로이며, 희망입니다.
한 번의 쓰레기를 줍고,
한 잔의 물을 아껴 마시며,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물의 가치를 담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Contents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 Summer Vol.61

theme

물의 시간

생명의 속삭임,
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발행인

임상준

발행일

2025년 6월 10일 통권 61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3017

제작대행, 인쇄

경성문화사 02-789-2999



K-eco 웹진 바로가기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 QR코드를 사용합니다.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I 자연 가까이 테마 이야기

02 지구 생각

생명의 속삭임, 물의 가치를 담아봅니다.

06 인터뷰

배우 남보라



10 인터뷰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



14 환경 트렌드 백서

컨서스패션·바닥사막화·
에코크래프트·어스아워

16 Column

물 스트레스에 맞서는 새로운 흐름,
워터 포지티브

18 인포그래픽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물

20 K-eco 아카이브

한국환경공단 수질원격감시체계
SOOSIRO

I 사람 가까이 K-eco 이야기

22 K-eco 포커스 I

2025년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

24 K-eco 포커스 II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

26 K-eco 버킷리스트

라탄 스탠드 만들기



30 친환경 라운지

걷고 줍고 지킨다! 플로깅 챌린지



32 동상동물

밴드 동호회 'FLOW8'

36 기자단이 간다

- 대구 환경사랑 홍보교육관
-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38 K-eco 미슈

Hi-Five 안전 프로젝트

40 K-eco 메이커스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

I 소통 가까이 환경 이야기

44 글로벌 환경 리포트

에코투어리즘

48 에코 스페이스

자주적관람



50 에코 로드

진산 성지순례길



52 에코톤

물 발자국과 수질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법

54 건강 라운지

여름철 이중 위험! 폭염 속 내 몸을 지켜라

56 K-eco 뉴스

58 K-eco 이벤트

59 에코 체형

여름 모빌 만들기

61 나도 K-eco



배우 남보라를 표현하는 타이틀은 특별하다. 13남매의 장녀, 선행의 아이콘, K-장녀, 효녀... 부담이 될법한데, 오히려 '누구에게도 넘겨주고 싶지 않은 수식어'라며 환하게 웃는다. 매사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배우 남보라, 그녀의 환경 실천법이 궁금해진다.

글: 임성은 사진: 김경수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민 K-장녀

배우 남보라





음성안내 QR코드

Q 요즈음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결혼식을 했습니다.(웃음) 그동안 결혼준비로 가장 바빴고, 방송활동과 유튜브 활동도 겸하고 있어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으니,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방송활동과 유튜브 채널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Q 남편분과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분과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분들한테 물품나눔봉사를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교회에 새로 등록하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고요. 제가 당시 봉사실장이어서 봉사자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꾸준하게 나오는 봉사자’ 정도였죠.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자기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은 정말 열심히 봉사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봉사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반대로 남편도 저를 보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Q 인터넷에 ‘남보라’를 검색하면 국민 K-장녀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부담은 없나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K-장녀’는 누구에게도 넘겨주고 싶지 않은 수식어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언제나 치지치 않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아이콘, 따뜻한 사람, 효녀 등 좋은 말로 저를 표현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책 제작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기부활동 등 다양한 선행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현재 사회적 기업 <보라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쪽방촌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도 너무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더라고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물품을 준비해 봉사를 하기까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사회적 기업 <보라도리>였습니다. 판매된 수익금은 전액 다 기부했었어요.

요리책 <나누면 따뜻한 집밥>은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이난우 요리연구가님과 인연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요리교실과 보육원에 도시락 봉사를 하고 계셔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요리책의 참여를 제안해주셔서 함께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 요리책으로 제작되기도 했지요. 좋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Q 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힘들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힘든 것 같아요. 저만의 주문처럼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같아요.

Q 유튜브 채널 구독자 달성 공약으로, ‘우간다 우물파기’에 도전하셨는데요.

아는 지인이신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우물을 파셨는데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그 모습에 공약을 걸었죠. 그분을 통해서 우간다에 계신 지인



분을 소개 받았어요.

당시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우물이 필요했던 상황이었
고, 선뜻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계가 고장
이 나는 이슈가 있어서 밤샘작업에도 제가 있는 동안 우
물이 터지는 걸 못 보고 귀국했습니다. 대신 물의 소중함
과 아프리카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한
국에 오고 나서 우물파기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도 전
해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우물파기에 도전해보
려고요.(웃음)

Q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물파기 활동을 통해서 느낀점이 있다면요?

제가 그곳에서 들은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물 하나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이 수직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평소에 물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데, 지구의 어딘가는 삶의 수직 상승을 좌우하는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고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Q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평소에 분리배출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음식물이 묻은 것은 반드시 닦아서 배출하고, 투명 페트병이랑 불투명 페트병을 철저하게 나눠서 배출해요. 그리고 촬영현장에서는 종이컵 하나에 이름을 써놓고 하루 종일 하나만 쓰고 있어요. 작은 실천인데,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에서는 패키지 프린팅을 수성 잉크로 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모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우선 배우로서 연기활동을 열심히 하고, 유튜브 채널도 더욱 열심히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형화된 곳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봉사활동과 <보라도리>의 CEO로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bright yellow button-up dress, is sitting on a light-colored sofa. To her left is a large, leafy green plant with palm-like leaves. The background consists of white vertical blinds. The overall mood is bright and serene.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같아요.

도심 하천은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고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자원이기도 하다. '우리 하천 지킴이' 활동을 통해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울 회장을 통해 도심 하천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한울 사진. 오충근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울 회장



음성안내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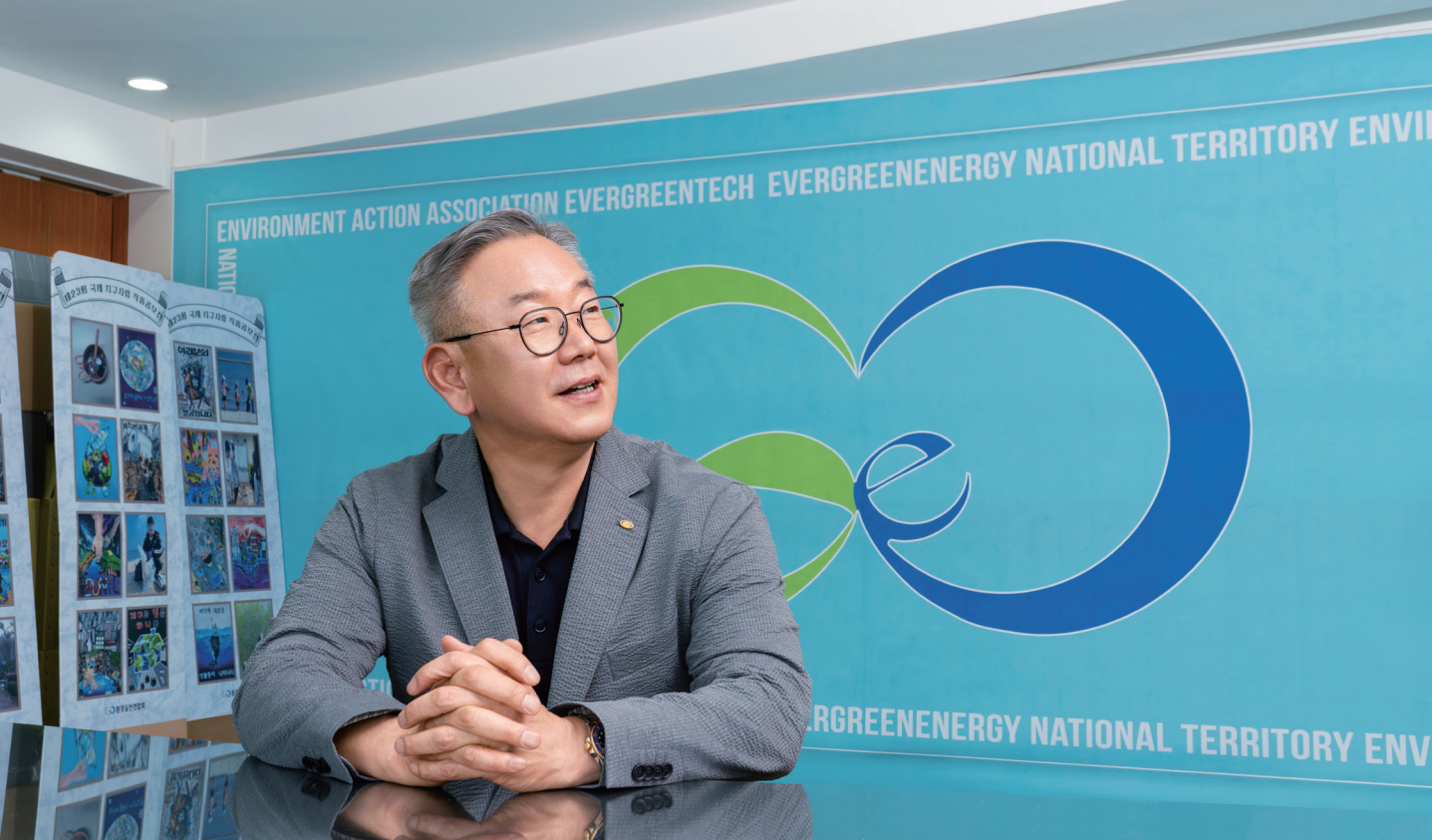
Q 환경실천연합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미래 세대에 자연과 환경을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실천 중심의 환경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2000년 설립 이래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환경의식 고취, 실천방안 홍보, 환경정책 및 대안 제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현재 500여 개 기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약 40개국의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 지위를 확보해 국제 NGO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환경실천연합회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활동이 궁금합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수질 및 토양 개선, 폐수 관리, 자원 재활용 촉진, 하천 살리기, 나무 심기 운동 등 생활밀착형 환경활동을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은 올해로 24회를 맞이해, 연령, 계층,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지구 사랑과 환경보호 실천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지난해에는 약 1만 4천 명이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Q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도심 곳곳에서 하천 살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심 하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물은 인간은 물론 모든 동식물의 생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특히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도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과 정서에 깊이 관여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천은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자연의 통풍구이자 빗물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천연 배수로이며,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아주 크지요.

더불어 도심 하천은 바쁜 도시인들에게 여유와 쉼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하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도심 하천은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기능을 아우르며 도시의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하천 지킴이’ 활동이 궁금합니다.

‘우리 하천 지킴이’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시작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황구지천과 오산천 등 일부 국가지방하천 보호 활동을 계기로 출범했으

며, 지역 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는 황구지천, 오산천, 공릉천, 중랑천 등 경기 지역 7개 주요 국가지천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와 지천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M 흙공(유용한 미생물) 투척, 교란식물 제거, 수질 정화식물 식재 등 하천별 맞춤형 정화 활동을 통해 하천 생태계의 균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해 EM 흙공 33만 개를 하천에 투척했는데요. 그 결과 공릉천, 중랑천, 용암천, 왕숙천 등 여러 하천의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Q 도심 하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생태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요?

도심 하천의 생태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외래 동·식물의 확산으로 토종 생물이 점차 사라지며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지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예전처럼 메뚜기, 잠자리, 매미 같은 익숙한 생명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도심 하천을 따라 걷기만 할 뿐 물가에서 쉬고 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진정한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도심 하천은 살아 숨 쉬는 생태계가 되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자연’이 될 수 있습니다.

Q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문제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밟고 선 땅, 매일 살아가는 공간 모두가 환경입니다. 개발과 산업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길을 찾아야겠지요. 식습관의 변화, 환경호르몬에 대한 경각심, 대기전력 차단,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등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실천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개인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 지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궁금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신규 시설의 무분별한 공급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국가적·정책적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조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환경활동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지구촌 모두가 상생하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환경보전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함께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며, 이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매일 마시는 공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위협받고 있는지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문제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목해야 할 ‘환경’ 키워드 여름 편

바다사막화·컨셔스패션·에코크래프트·어스아워

컨셔스패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

Y2K, 올드머니, 발레코어 등 눈 깜빡할 사이 바뀌는 의류 트렌드를 따라잡기 벅찰 정도로, 패스트패션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행을 쫓는 노력은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패션의 회전율만큼 옷의 수명도 짧아지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 세계에서 수억 장의 의류가 버려진다. 특히 화학섬유는 자연분해에 수백 년이 걸리며,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한국화학섬유협회에 따르면, 전체 섬유 생산량 중 화학섬유가 72%를 차지하는 만큼 폐의류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컨셔스패션’이다. 천연 섬유나 재활용 소재로 옷을 만들거나, 폐의류를 가공해 업사이클링하는 등 생산 전 과정에 환경을 고려한 고민이 담긴 패션이다. ‘컨셔스패션’은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지구를 생각하는 선택이자 책임 있는 소비의 시작이다.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은 유행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바다사막화 죽어가는 바다의 경고

물로 가득 찬 바다가 어떻게 사막이 될 수 있을까? 이는 바닷속에 녹아 있던 탄산칼슘, 즉 석회 가루가 해저 바위나 해양생물 표면에 달라붙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현상’을 뜻한다. ‘바다사막화’가 진행되면 탄산칼슘이 물에 녹지 않고 해저에 쌓여 딱딱한 층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해조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생물들이 줄어들면서 상위 포식자까지 영향을 받는다.

결국 해양생태계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정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회조류를 제거하고, 어린 해조류를 심거나 포자를 방출해 해조 군락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제정해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다사막화’는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천뿐 아니라, 일상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의 생활실천 또한 도움이 된다. 작은 행동으로 바다의 건강을 되살리는 일에 동참해 보자.





음성안내 QR코드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 지향적 세대가 환경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환경이슈가 어느새 일상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빠른 트렌드 속에서도 부각되는 오늘날의 환경 키워드를 살펴보고, 삶 속 환경감수성을 높여보자.

글. 함유진

에코크래프트 손끝으로 만드는 녹색 감성

‘에코크래프트(Eco-Craft)’는 ‘환경(Ecology)’과 ‘공예(Craft)’의 합성어로, 재생 종이로 만든 크래프트 밴드를 엮어 생활 소품, 인테리어 제품,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친환경 공예다. 종이박스나 우유팩 등을 재활용한 100% 재생지에 색을 입혀서 만든 종이 줄은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이를 하나하나 엮어가는 과정은 마치 손끝으로 환경을 지키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에코크래프트’의 장점은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드를 이용해 후처리하기 때문에 잘못 붙었더라도 열을 가해 본드를 녹여내면 깔끔하게 떼어내 다시 작업할 수 있다. 또한, 본드가 마르면 단단해져 약간의 습기에는 쉽게 변형되지 않으며 제품의 수명도 길다. ‘에코크래프트’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지구를 위한 취미’로 주목받아 지역 공방이나 체험키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작은 공예품 하나를 만드는 일에 담긴 친환경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버려질 뻔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에코크래프트’의 시작이다.



어스아워 불을 끄고 지구를 켜는 시간

빛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다. 주변을 인식하기 어려운 어둠은 두려움을 동반해 왔고, 인간에게 어둠은 늘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닌 지구를 위해서라도, 안정과 편리함을 주는 빛을 잠시 떠나 어둠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보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어스아워(Earth Hour)’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하는 ‘1시간 소등 캠페인’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주도해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지속되고 있다.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불필요한 전등과 조명을 끄는 이 실천은 전력낭비와 빛 공해를 줄이고, 탄소배출까지 절감할 수 있는 뜻깊은 친환경 행동이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스아워’는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 실천으로 더욱 의미 있다. 핸드폰 일정표에 미리 메모해 두고, 1시간의 소등 속에서 지구를 떠올려 보자. 세계가 하나 되어 환경을 생각하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는 다시 푸른 지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물 스트레스에 맞서는 새로운 흐름, 워터 포지티브

연평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에서 물의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물 스트레스' 지수.
기후변화로 강수량 불균형과 이상고온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물 위기'는 이제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현실화되고 있다.

글 박지영(파이낸셜뉴스 경제부 기자)

*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성안내 QR코드

한국 물 스트레스 수준 '심각'

앞서 202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의 물 스트레스 수준을 85.52%, '심각' 단계로 평가했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1.6배나 많은 비가 내리지만,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그 양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형적 특성상 유역면적이 작고 국토의 63%가 산악지형으로 경사가 급해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유출돼 물 관리가 어렵다.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철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구조적 특성으로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다.

물 스트레스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다. 보건과 위생은 물론, 전력·수도·식량·산업·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다. 특히 전력 생산,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운영 등 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몰린 한국 경제의 구조상 물 부족은 곧 산업 리스크로 직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 스트레스를 체감하기 힘들다. 2020년 기준 한국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평균 물 사용량은 192L에 달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 2위인데, 그야말로 물 걱정 없이 평평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자원을 '있는 대로' 쓰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앞서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 글로벌 리스크 영향력 측면에서 '물 위기'를 5위로 선정한 만큼 대비책이 필요한 때다.

싱가포르, '뉴워터' 물 재활용 성공

현재 성공적인 수자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였다. 자체적으로 강이나 호수 등 수자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 토지 면적도 좁아 지층의 특징상 충분한 양의 물을 보유하기에 불리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수자원 시스템 재활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에 매진해 획기적인 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 현재 수자원 재활용 선진국으로 급부상했다. 하수를 정화해 새로운 수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뉴워터'는 고도 정화된 하수 재처리수를 말하는데, 현재 싱가포르 수돗물의 상당 부분은 이 '뉴워터'에서 나온다.

워터 포지티브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이처럼 물 순환 생태계 전반을 되살리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과 사회가 쓴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되돌리는 전략이다. 기존의 물 관리가 절약과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화하고, 재생하고, 순환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데이터센터의 냉각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물 대신 공기를 이용해 온도를 낮추거나 절연성 액체를 활용하는 냉각 방식 등을 연구 중이다. 구글은 2022년 완공한 사옥 '베이뷰 캠퍼스' 옆 호수에 빗물을 저장하고 정화시설을 거쳐 재사용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 노력이 시작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력 플랫폼은 산업계 전반에 걸친 물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물 부족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워터 포지티브'와 같이 물의 재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싱가포르 '뉴워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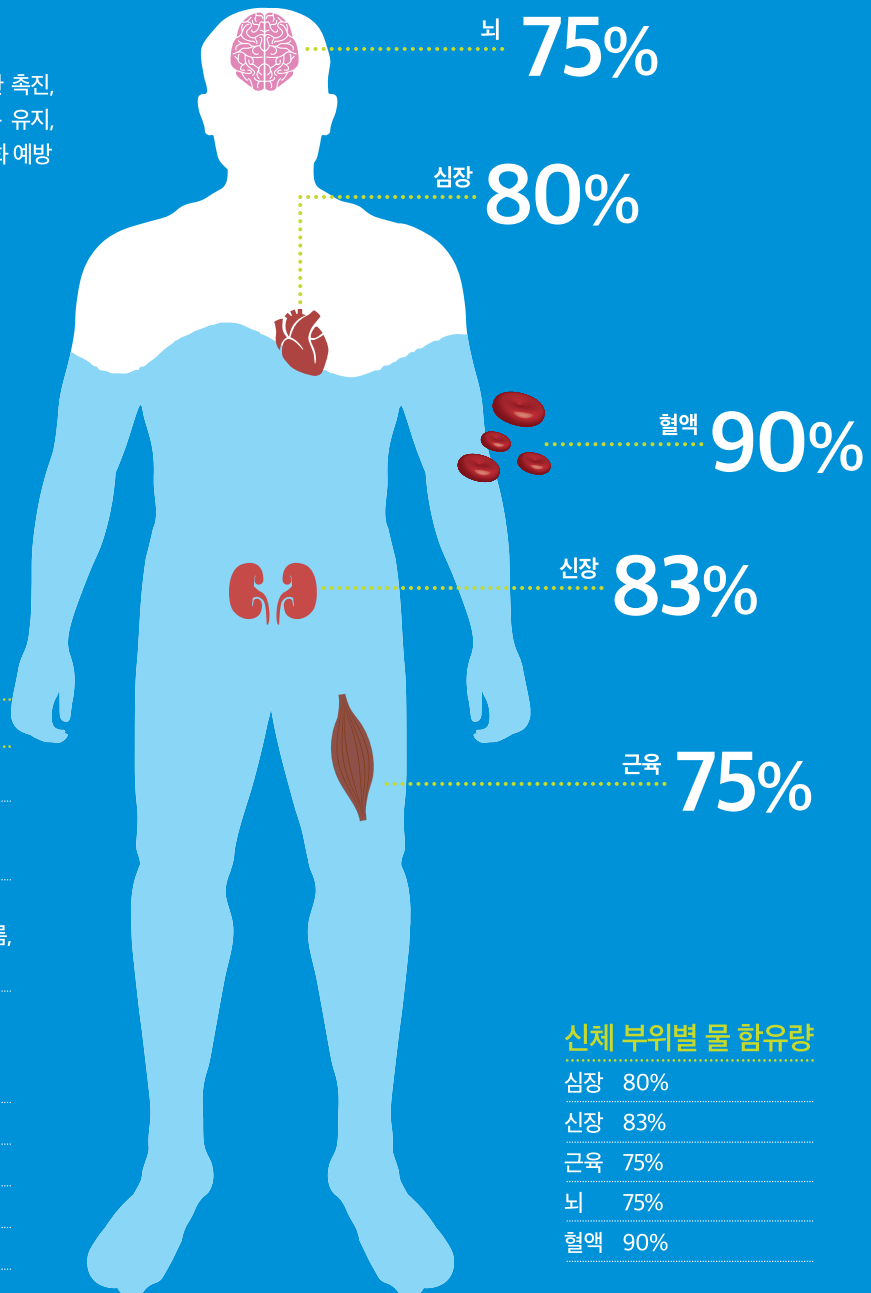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물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올바른 물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물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는 물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환경부, 세계보건기구(WHO)

체내에서 물의 역할

독소 배출, 변비 예방, 혈액 순환 촉진, 다이어트 효과, 혈압 유지, 체온 유지, 면역력 증진, 숙면 유도, 피부 노화 예방



체내 물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

1%	갈증
2%	갈증 심화, 불쾌감, 중압감, 식욕상실
3~4%	운동능력 감소, 소변량 감소, 입이 마름, 구토감, 무기력
5~6%	체온조절 능력 상실, 맥박 증가, 정신 집중 장애
8%	현기증, 혼돈
10%	근육 경련
11%	혼수상태
20%	생명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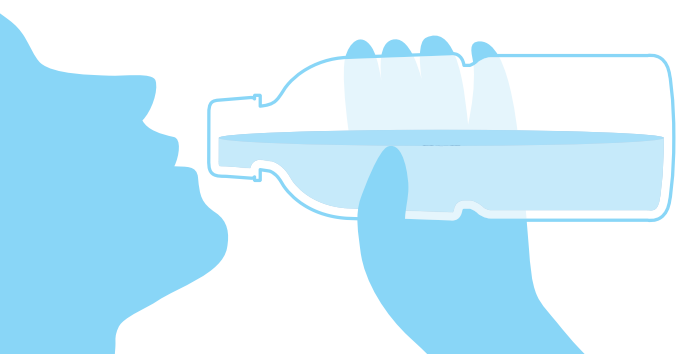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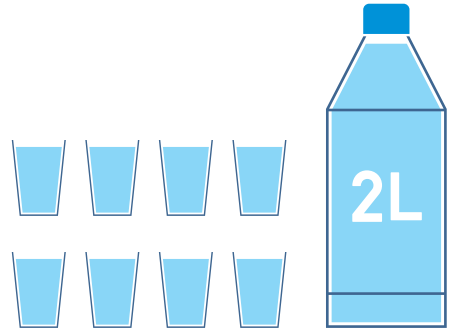
신체 부위별 물 함유량

심장	80%
신장	83%
근육	75%
뇌	75%
혈액	90%

하루 물 섭취 권장량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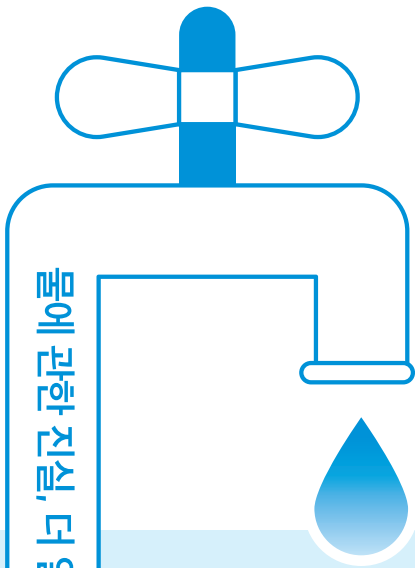
(키+몸무게) / 100 = 내 몸에 적절한 하루 물 섭취량(L)

예) 키 160cm, 몸무게 50kg 기준(160+50) / 100 = 2.1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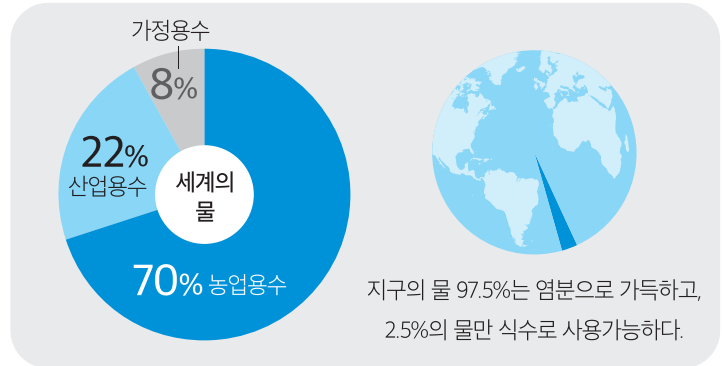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물 섭취 생활수칙

-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여러번 나눠 마시기
-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에 4~5잔 마시기
- 음료수 대신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수분 섭취하기
-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매시간 물 섭취 하기
- 개인의 나이, 성별, 질환을 고려해 적정량의 물 섭취 하기



물에 관한 지식, 더 알아두어야!

물 사용 용도



우리가 하루에 쓰는 수돗물 1인당 평균 **295L**

=2리터 짜리 페트병 147개 분량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 196.4L)



세수하면서
22L



샤워하면서
31L



세탁기 돌리면서
39L



설거지 하면서
41L



변기물 내리면서
49L

한국환경공단 수질원격감시체계 SOOSIRO-깨끗한 물환경을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수질오염물질 실시간 원격감시 시스템 'SOOSIRO'는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학적인 수질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수질 TMS(Tele-Monitoring System)의 관제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의 수질 환경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수질TMS 구성 ▶



▶ 24시간 수질오염물질 배출 감시로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를 예방하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간헐적 현장점검 방식의 한계와 반복되는 수질오염사고로 실시간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격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디지털 기반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 'SOOSIRO'의 주요 기능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행정 지원

pH,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유량 등 주요 수질항목을 공공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처리용량 700m³/일 이상), 폐수배출사업장(처리용량 200m³/일 이상)에서 수집하여 관제센터로 전송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배출부과금 산정, 행정처분,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된다.

전국 단위 관제센터 운영

'SOOSIRO'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제주권 등 5개 권역과 본사에서 총 1,095개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CCTV, 출입관리장치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측정소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한다.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신속한 비정상자료 자동 판정 시스템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공개 및 이해도 제고

수질TMS 부착사업장의 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SOOSIRO 누리집(www.soosiro.or.kr/open)과 모바일 웹에 공개되며, 기술간담회,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 우리나라 물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

오염사고 사전 예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CCTV 및 출입관리장치로 측정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과금 산정과 행정처분으로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자발적 환경 개선 유도

실시간 자동측정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장 스스로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배출 특성을 분석하여 자발적으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질TMS 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시설 개선 또는 운영방식 최적화를 통해 운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우수사례로 발굴·공유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알권리 실현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장·지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적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

‘SOOSIRO’는 실시간 원격 데이터 기반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세계 유일의 시스템으로, 기술적 우수성과 정책적 혁신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수질TMS 제도와 SOOSIRO 시스템이 소개되었으며, 이들 국가에서 선진 환경관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지속가능한 물환경을 위한

AI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수질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징후 예측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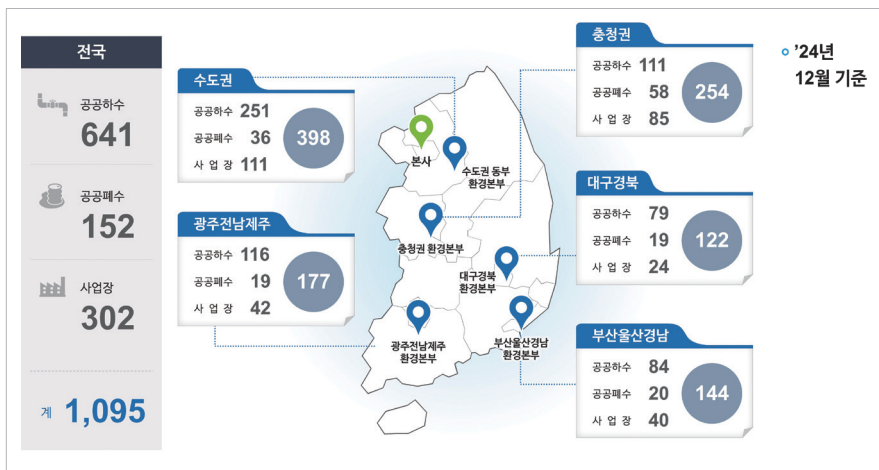
단순 수집·감시를 넘어, 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이상패턴 자동 탐지와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사고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데이터 연계 강화 및 정책지원 확대

수질TMS 데이터를 타 행정기관 및 관련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여, 국가 물환경 정책 수립과 환경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환경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제 협력 및 기술 수출 추진

‘SOOSIRO’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 협력 및 수출 모델을 확립하고, 국제 환경규제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수질TMS 사업장 현황



2025년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장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환경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에서 테스트베드 제공,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에는 '2025년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었다.

글: 한울 사진: 김경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협력이 빛나다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가 열린 중소기업 DMCTA 워 DMC홀은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참가 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성과가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협력기업 간 R&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총 10개의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그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5개의 과제가 본선에 진출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생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동반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수 과제는 상생협력의 공공적인 사례로, 중소기업과 공단이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시민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경진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우수한 기술로 상생과 협력의 결실을 맺다

본선에 진출한 기업들은 각자의 과제에 대한 협력 배경, 수행 과정,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을 공유하며 협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나누었다. 발표자들은 최선을 다해 발표에 집중했고, 이를 지켜보는 팀원들은 열정적인 응원으로 힘을 북돋웠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심사가 시작되었다. 심사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술 혁신성, 판로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발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예의 대상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와 (주)동양특수콘크리트가 공동 개발한 '관 정렬 및 고정 가능한 관 보호 블록 장치'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와 (주)내강산업이 협력한 '기후재난시 주민 안전 등을 위한 긴급 차단 자동강하식



수문 권양기 개발'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생활환경안전처 생활환경지원부와 (주)싸이언이 공동 개발한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은 K-eco연구원 측정기검사부와 (주)테트라알파가 협력한 '지하 매설 저장장치 누출 측정기기 시험 검사용 탱크 개발'과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와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이 함께한 '자동 탈착 타입 수증펌프 들림 현상과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 가이드 혹 탈착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 우수과제는 오는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등에서 우수제품 홍보 및 전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산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수상한 우수과제들이 친환경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실증화 및 현장 적용 지원 등 지속적인 판로 개척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Mini Interview

대상



김영선 과장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공사 현장의 시공 편의성, 작업자의 안전,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싱크홀 예방과 예산 절감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단과 협력사가 함께 이룬 결과인 만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까지 함께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명권 대표 (주)동양특수콘크리트

현장을 세심히 관찰하고 하나하나 메모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한 덕분에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시 침수와 싱크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맨홀과 관의 연결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장치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진보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을 실천하다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 개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실천 현장을 마련

지난 4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가 개최됐다.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는 한국환경공단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주관하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벤처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P,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페스타에 힘을 보탰다. 초기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동반성장 페스타'에 참가한 기업들은 특히 그동안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기술개발 시범구매제품 및 녹색제품, 청년창업제품으로 이번 페스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4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가 개최됐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끌었던 현장의 순간을 담았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환경공단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원이엔에스, ㈜제에엠엘이디, ㈜아라 등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업인 ㈜지키다 조상은 대표는 "이번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를 통해 공공분야 판로확대 및 마케팅에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만족감을 전했다.

공공부문과 민간이 동반성장하는 모델이 되도록

이번 행사는 생명구조타월, 유해가스 방지용 마스크, 액상소화기, 시 스마트플러그 등 안전 관련 제품과 손세정제 등 친환경제품을 제조하는 30개 중소기업들이 참가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매출을 전망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행사로 주목받았다.

공단은 페스타에 그치지 않고 △성과공유제 프로그램 운영 △환경 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보호 △상생결제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 활용 등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결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임상준 이사장은 "K-eco 동반성장 페스타가 단순한 구매상담회를 넘어,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성장을 이끄는 동반성장 모델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끝에서 엮어가는 따뜻한 감성 라탄 스탠드 만들기



라탄의 계절이다. 시원하고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어린 시절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 품목이었던 라탄. 오늘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은 자연의 소재가 주는 편안함을 가진 라탄 스탠드 만들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글 임성은 사진 김정수

친환경 소재 라탄이 만들어내는 감성

촉촉하게 여름비가 내리던 오후, 라탄 공방에 한국환경공단 강주희 과장, 백다혜 주임, 박성은 대리, 신홍 주임이 모였다. 자연이 선사하는 편안함을 닮은 공방에는 다양한 라탄 소품이 한가득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주희 과장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접했던 바구니, 채반, 휴지 케이스 등 익숙한 라탄 소품에 반가워했다. 평소 좋아했던 라탄 가방을 발견하자 한참을 살펴보고 오늘 체험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평소에 라탄으로 만든 가방을 좋아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어 더욱 반갑네요. 그리고 라탄으로 이렇게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니, 라탄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백다혜 주임의 원픽은 정교하게 엮어서 만든 텀블러 케이스. 그녀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섬세하게 엮여있는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제가 실력이 된다면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품목이에요”라며 라탄 클래스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어머니가 토털공예 강사로 활동하고 계셔서 만들기에 익숙하다는 신홍 주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다양한 만들기를 하시는 걸 봐서, 저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잘

만들어서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도전 이유를 전했다. 오늘 만들어 볼 소품은 라탄 스탠드이다. 라탄은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나무줄기로, 부드럽고 견고해 다양한 소품으로 만들어 활용 가능하다. 라탄의 매력은 대나무나 다른 전통 공예의 경우 재료를 엮기까지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라탄은 재료 구입이 쉬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드나 접착제 등의 화학재료를 쓰지 않고 오직 물을 이용해 엮어가는 과정을 통해 형태를 만들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테이블 위에는 강사가 미리 틀을 잡아 놓은 라탄이 준비돼 있었다. 생소함에 직원들의 얼굴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설렘이 묻어난다.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라탄은 소박한 소재이지만, 집안에 온기를 주는 존재입니다. 설명을 듣고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날대와 사릿대를 서로 엮어가며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라탄이 딱딱해지면 작업하기 어려우니, 중간중간 테이블에 있는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작업하면 됩니다. 모르면 언제든지 제가 해결해 드리지요.”(웃음)

강사의 말에 웃음을 터트리며 모두의 얼굴이 환해졌다.





음성안내 QR코드





손끝에만 오롯이 집중하며 평온해지는 시간

라탄 공예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날대와 사릿대를 잘 구분하는 것이다. 내 몸에 붙어 한 방향으로 날대를 중심으로 사릿대로 옆면을 채워가면 형태를 잡아갈 수 있다.

작업을 한지 20여 분이 지나자, 모두 스탠드와 하나가 되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끝에만 오롯이 집중해 말수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박성은 대리는 “게시판에 올라온 스탠드가 너무 예뻐서 신청했습니다. 클래스를 통해 힐링하고 싶기도 했고요. 처음에 순서를 기억하느라, 힐링이 아니라 잠시 노동이 되긴 했지만 익숙해지니 마음도 평온해지고 제대로 힐링하는 기분입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강사는 더 멋진 완성품을 위해 직원들의 작품을 꼼꼼히 살펴주

었다. 백다혜 주임의 스탠드를 보고 “라탄은 틈 없이 촘촘하게 엮어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예쁘게 잘하시네요. 순서도 제대로 이고요”라며 칭찬했다. 동료의 칭찬에, 다른 직원들은 ‘오~’라며 응원을 전했고 공방의 공기가 순간 유쾌해졌다.

강주희 과장은 “아이가 밤에 자다 깨면 무서워서 수면등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마음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아, 아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 집중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걸요”라고 수업에 대해 만족감을 전했다.

저마다의 공간에서 따뜻함을 담아내다

작업을 한지 어느덧 두 시간이 가까워지자, 스탠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차분하게 엮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근사한 라탄 스탠드가 완성됐다. 네 사람 모두 “잘 만들었다”라며 서로의 수고를 칭찬했다.

단단한 라탄 줄기로 작업해서인지 네 사람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붉게 부어있었다. 박성은 대리는 “집중하느라 손가락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다 만들고 나니 새로운 작품에 도전해 보고 싶네요. 무엇보다 직접 만들어서인지 소중하고 애정이 가요”라며 친한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다혜 주임은 자신이 손수 만든 스탠드가 꽤나 맘에 들었는지,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정성과 노력이 가득 담겨서인지 더 기쁘요. 칭찬을 많이 들었으니, 어려워도 텀블러 케이스를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희 주임은 가느다란 라탄 줄기가 자신의 수고로움을 통해 멋





진 스탠드로 완성되자, 어머니에게 사진을 찍어서 전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강사님 덕분에
멋지게 완성한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잘 만들었다며, 자신도 해
보고 싶다’라고 바로 답장을 해주셨어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과 노력으로 엮어 만들어 낸 작은 스탠드
는 그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사

용하겠다는 마음이 소중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마
음이 바뀔 정도로.
라탄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흠뻑 빠져 오롯이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경험을 선물해 준 시간, 이들이 만들어 낸 작품은 단순
한 물건이 아닌 저마다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집에서 스탠
드를 볼 때마다 오늘이 즐거운 순간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라탄 스탠드 만들기 체험 후기

강주희 과장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처 계약부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 걱정했는데, 잘 마무리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바쁜 부서인데, 참여해 보
라고 응원해주신 김상석 부장님! 감사합니다.



백다혜 주임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침대 옆에 놓고 잘
쓰겠습니다.



박성은 대리

기후대응기금센터
기금운용부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더 애정이 생
기는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둔 친구가 있어서 수유등으
로 선물해주고 싶어요.



신효 주임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만드는 동안 정말 힐링이 됐습니다. 스탠드를 찍어서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plogging challenge

걷고 줍고 지킨다! 플로깅 챌린지

파란 하늘 아래, 걷기 딱 좋은 날씨가다. 스웨덴어 'Plocka upp(줍다)'와 영어 'jogging(조깅)'이 만나 만들어진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특별한 활동이다. 지구와 나 모두가 건강해지는 이 소중한 활동을 실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우보미 대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 실험분석부

이번 공감소통의 날 행사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롯데시네마 현풍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골목길 공터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 환경공단인으로서 깨끗한 거리 유지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실천했습니다. 동호회원들의 앞길이 늘 깨끗하게 유지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플로깅 할게요~



김윤정 대리

본사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처 노사협력부

사보에서 플로깅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천변을 따라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처음에는 꾸벅꾸벅하다가 본격적으로 장갑을 끼고 출동! 계속 쓰레기만 보여서 열심히 줍다보니 천변산책로 끝에 와있더라고요. 보람찬 주말이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심선우 주임

본사 기후대기본부 사업장대기처 사업장대기기술부

동기와 함께 마음안심버스를 방문해 검사 및 상담을 받으려던 중, 환경기술관 앞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한 회사 캠퍼스를 위해 동기와 함께 쓰레기를 주워 사무실까지 가져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 기분이 참 좋았어요!!!



독자 김소울 님

수원시 권선구

평소에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를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환경챌린지가 나와서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산책길에 찍어서 보내봅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주변을 한 시간씩 돌고 있는데, 공원에 먹고 버린 캔이며, 과자봉지들이 버려져 있어서 새삼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풍경만 보고 산책에만 집중했는데, 플로깅을 하면서 보다 보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정유석 대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 재료시험부

강촌에서 가족 3대가 함께 플로깅 활동을 하며 자연을 지키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길과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깨끗한 환경 만들기 동참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른 참여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하나된 이들

밴드 동호회 'FLOW8'

하루에 단 10분만 악기를 잡아도 기분이 달라진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힘들었던 일들도 잠시 잊혀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무엇보다 혼자 잘하려는 마음보다는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맞춰가는 과정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연주를 거듭할수록 점점 호흡이 맞아가는 그 짜릿한 느낌! 그것이 바로 'FLOW8'이 밴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글 한울 사진 박충렬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 밴드로 완성되다!

무대 위에 'FLOW8' 멤버들이 올랐다. 각자 악기를 조율하며 눈빛을 주고받는 사이, 밴드 마스터인 이두민 차장이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연주가 시작되었고, 보컬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다. 무대에 선 멤버들은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개성 넘치는 뮤지션으로 빛났다. 2024년에 결성된 'FLOW8'은 '물의 흐름에 몸을





음성안내 QR코드

말기듯, 모든 시름과 스트레스를 씻어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밴드 결성 배경에 대해 회장인 이두민 차장이 설명했다.

“2012년, 본사의 밴드 동호회 ‘एको뮤직스’에서 활동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부울경본부로 발령을 받아 오면서 밴드 활동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죠. 이후 국가물산 업클러스터로 발령을 받았는데, 문득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이곳에서도 즐거운 밴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시관 리뉴얼 행사를 앞두고 다시 밴드를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지난해 5월, 초여름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혜민 대리에게 이두민 차장이 “혹시 피아노 쳐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건넨 한

마디가 ‘FLOW8’의 시작이었다. 김혜민 대리가 당시를 떠올렸다.

“피아노는 초등학교 때 잠깐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두민 차장님이 계속 ‘피아노 한번 쳐보자’며 진심을 담아 설득하셨고, 그 마음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죠. ‘안 되면 레슨이라도 받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웃음). 처음에는 저와 이두민 차장님, 딱 두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주위 동료들에게 ‘우리 밴드 한번 해보자’라며 설득을 이어갔어요.”

멤버를 찾기 위한 두 사람의 애달픈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덕분에 하나둘 멤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밴드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포스터 문구는 ‘나도 공연해본 사람이야였다. 낯설지만 설레는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 함께 음악을 나누고 싶은 진심을 담았다.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무대에 서다

‘FLOW8’은 여름을 지나며 점차 팀을 갖춰갔다. 지난해 7월, 신입 직원들이 합류하며 마침내 ‘완전체’가 되었고, 이들의 첫 무대는 이두민 차장의 계획대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홍보전시관 리뉴얼을 축하하는 행사로 정해졌다. 회원들은 점심 시간을 활용해 주 1~2회 연습을 이어갔으며, 공연을 앞둔 2주간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 매일 모여 연습에 매진했다. 물산업자원부 류상준 대리가 첫 공연에 대해 소회했다.

“그때 그 현장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이사장님께서서 관람해 주셔서 긴장감이 더욱 컸습니다. 처음 서는 무대라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지만, 꾸준한 연습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어서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연습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두민 차장은 “공연 중 진행했던 ‘십 원의 행복’ 이벤트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관객들이 10원씩 송금하며 ‘공연 감동이에요’ 같은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였는데,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약 60만 원이 모금됐다. 덕분에 멤버들은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열어 서로

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끈끈한 팀워크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본사의 ‘공감소통’ 행사 무대에 오르며 ‘FLOW8’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을 떠난 후 처음으로 서는 무대였기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현승미 대리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왕복 10시간에 달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다 함께 봉고차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할 때는 마치 인력시장에 출근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웃음). 본사 밴드 연습실을 대여해 구경하는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정신이 없던 와중에 김혜민 대리님이 평소 쓰시던 건반을 못 알아본 일로 모두 크게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2024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음악을 통해 변화하는 나와 나의 삶

음악은 멤버들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소중한 심포 같은 존재다. 직장이라는 동일한 공간 안에서 나 이과 직급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음악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간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연습하는 즐거움, 공연 후에는 서로의 실수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는 소소한 기쁨이 쌓이면서, 음악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동시에 멤버들을 더욱 단단하게 연결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FLOW8' 멤버들은 “의견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우리 밴드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혜민 대리는 밴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악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변했다고 전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직장인 밴드를 보면서 막연히 ‘나도 저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음악은 끼가 있거나 전공한 사람들, 혹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저는 아이도 키우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가능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연습하다 보니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커졌어요. 언젠가 팀원들과 함께 버스킹을 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음악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놓았습니다.”

현재 'FLOW8'에는 총 2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오는 7월에는 신입사원 입사 축하공연, 10월에는 대구 동성로 거리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FLOW8'.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나’로 탈바꿈한다는 이들의 멋진 음악 여정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Mini Interview



이두민 차장(회장)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 실증화지원부

밴드 구성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뜻깊은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시간이 흐른 뒤 모두가 미소 지으며 회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승미 대리(회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글로벌비즈부

밴드에 가입하고 싶지만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 친다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주저 없이 ‘그냥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해보고 살아야죠.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체험형 환경학습공간 대구 환경사랑 홍보교육관

글·사진: 강유진(푸루美 14기 기자단)

지난 5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에 위치한 ‘대구 환경사랑 홍보교육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2000년 3월 31일에 개관하였으며, 2021년 체험형 전시관으로 리뉴얼 후 재개관하였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에 옆에 위치해있다. 현재 ‘환경사랑 홍보교육관’은 대구, 안성, 광주, 부산, 서울, 전북 총 6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 환경사랑 홍보교육관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체험 학습공간으로, 물환경, 생태복원, 자원순환, 생활환경, 도시환경, 기후대기, 미래직업체험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체험이 가능하다. 현재 특별프로그램으로 ‘우리동네 환경테마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K-eco ESG환경놀이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은 예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타임(1시간씩)이 운영된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eco.or.kr:7979/ecolove)나 전화(053-280-3884)로 문의하고 방문하면 좋겠다.

본격적으로 공간을 둘러봤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인 생태복원 공간에서는 환경의 시초인 자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

졌다. 생활환경관에서는 “오염물질아 꿈썬 마!”라는 주제로 화면에 뜬 미세먼지를 그림자를 이용해 처치하고 그림을 색칠하여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놀이식 체험이라 어린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어서 자원순환 공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리배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재활용품을 놓고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하는지 배우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했다. 또한, 차량에 분리배출을 한 후 손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원을 스스로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는 체험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도 생활 쓰레기의 순환과정을 담은 생활환경공간, 빗공해와 집안에서의 전력소비량, 도시환경에 대해 탐방해보는 도시환경공간까지 우리의 일상이 바로 환경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한편,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의 분배 시간을 알아보고, 물환경을 알아보는 체험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기후대기 공간에서는 직접 휘발유를 넣고 화면에 나오는 자동차를 핸들을 돌리며 체험할 수 있었는데, 차량 별로 나눠져 있는 공간 속에서 재미있게 달리다 보면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위에 있는 풍선을 보며 눈으로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이 가능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미래환경 직업체험존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설명과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오늘 하루 다양한 환경 체험을 해보며 “지금도 자원은 쓰이고 있고, 우리가 숨쉬는 만큼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인지하고 아낄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 홍보가 많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 속 물 산업 중심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글·사진 양지원(푸루美 14기 기자단)



우리의 삶에서 ‘물이 없는 일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 더 나아가 ‘깨끗한 물’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터. 인간의 삶을 통틀어 물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는 인류 문명의 시작인 4대 문명이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생겼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물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대구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물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물 기술 제어탑으로서 연구를 기획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기술의 성능평가를 하며 국내외 물 시장 진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히 기술을 모아둔 단지가 아닌, 물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물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흥미가 생겨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을 방문했다. 이곳을 돌아보고 난 뒤 물 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하며, 평가할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다.

공간은 물 융합 연구를 위한 물 융합 연구 A동과 B동, 하수와 폐수를 위한 수오자 설계 구역, 정수와 재이용을 위한 실증플랜트, 인증을 위한 국가물기자재 성능인증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국가물기자재 성능인증센터였다.

2024년 11월에 준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자체적으로 성능 시험을 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현재 이곳에는 2025년 4월 기준 112개의 연구시설과 39개의 집적단지가 입주해 있다. 정말 ‘국가물산업의 중추’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최근까지 누적 매출 6조 5000억 원, 수출 4000억 원 등의 성과를 내면서 국내 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이제는 세계 시장을 바라보며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12개의 기업에 81억 원을 지원할 정도로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옴뎀 물기업’으로 에너지, HSCMT, 블루센이 선정되었다. 이 중 ‘블루센’은 자동 드레인 장치를 동남아시아에서 현지화에 성공해서 맞춤형 물 시장 창출을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수질계측기기의 품질을 향상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1호 입주기업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옴뎀 스마트’ 분야에서는 탭전자산업과 에이치코비가, ‘옴뎀 탄소중립’ 분야에서 비앤이테크, 에이치앤텍, 시노펙지가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의 물 산업 발전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한국환경공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다

Hi-Five 안전 프로젝트



5월 8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를 비롯 부산지역 12개 기관이 민·관 합동 외국인근로자 통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i-Five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의·식·주·의료·문화' 5대 분야 지원과 ESG 실천의 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환경공단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현장과 생활환경을 지원하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관내 12개 기관·기업·단체와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Hi-Five 안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인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현장 및 생활환경의 '의(衣), 식(食), 주(住), 의료, 문화' 5대 분야를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ESG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협약기관별 합동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의료·문화 연계 안전관리 강화 △안전 교육을 통한 ESG 상생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부산 명지·녹산,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안전 인프라 개선이 주요 타깃이다.

5대 핵심지원, 작업복 지원부터 문화 행사까지

'Hi-Five 안전 프로젝트'는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12개 기관 저마다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5대 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환경부터 실질적 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통합형 안전 지원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5대 중점지원





사항은 (의)작업복 및 일상복 지원으로 맞춤형 안전관리, (식)안전취약시기 대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주)사업장안전점검, (의료)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 (문화)근로자 자립지원 및 문화행사 등 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조끼, 개인보호장구 지원, 여름철 근로자 건강을 위한 얼음물, 비타민 나눔 등의 현장관리, 기숙사 유해물질 특별 안전 점검, 산업재해 안전을 위한 한국어 직무형 교육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제별 화학안전리더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별 화학안전 SOS 교육, 맞춤형 GHS 그림문자 교육, VR 훈련을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서승명 본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ESG 실현의 선도적인 모델이다”라며 “공단은 지역사회와 협업해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제도와 언어의 장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Hi-Five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지역맞춤형 ESG 실현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Hi-Five 안전 프로젝트」 세부 실행(안)

구분	지원 내용
의	일상복 의류 나눔(1억 원 상당)
	안전조끼 / 근로자 개인보호장구(6종) 지원
식	하절기 근로자 건강관리(얼음물, 비타민, 식염 포도당)
주	외국인 기숙사 안전점검(화재, 전기, 가스, 유해물질)
의료	무료 건강검진
	의료봉사단체 연계 무상 진료
	보건교육(만성질환 관리 등) 및 구급함 지원
문화	근로자 자립지원, 문화행사, 통번역 및 홍보
	산업재해 안전을 위한 한국어 직무형 교육 지원

「Hi-Five 안전 프로젝트」 참여 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갑을독산병원, 독산 이주민의 집,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남부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부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주)세정,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시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책임지다!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

강원 남부권 네 개 시군의 상수도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수도통합운영센터.

전 조직이 '원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업하고, 민원 대응부터 시설 개선까지

현장을 중심으로 업무 체계를 운영해 온 결과, 지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한울 사진. 오충근





음성안내 QR코드

최적의 상수도 시설 관리를 실현하다

지난 2009년, 태백시 지역민들은 3개월 동안 하루 세 시간이라는 제한 급수에 시달렸다. 씻지도 못하고 아기 분유를 먹일 물도 없어 전국 각지에서 생수가 공수되는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다.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이 2009년 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태백뿐만이 아니었다. 강원 남부권 전체가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높은 누수율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부가 펴낸 '2008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2.2%인데, 태백시의 경우 55.8%로 전국 평균의 네 배를 넘었다. 연간 약 1,400만m³의 용수를 생산하지만, 그중 790만m³가 새고 있었다. 이 가운데 430만m³

만 제대로 확보했어도 5만 명에 이르는 시민에게 충분한 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유수율을 높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상수도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현욱 센터장의 설명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강원 남부권의 영월, 정선, 평창, 태백 등 네 개 지자체의 수도사업소를 인수해 수도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관리 구역 면적은 약 4,114.9km²로, 이는 서울 면적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수도통합운영센터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최적의 상수도 시설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도통합운영센터는 수도시설 운영과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노후 약품투입설비 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정수 품질을 높였고, 노후 상수관로 6.87km 교체, 864건의 신속한 누수 탐사와 851건의 누수 복구를 통해 유수율 제고에 힘썼다. 그 결과 안정적인 용수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 남부권 약 13만 명의 지역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매 순간 마음을 담아 책임을 다하는 이들

수도통합운영센터는 여섯 개 부서와 사업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근무하고 있다. 각 사업소는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호 보완하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는 협업 체계를 통해 현장의 취약점을 신속히 극복하고 있다. 특히 강원 남부권의 지형적·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상수도 운영에는 더욱 긴밀한 협업과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강원 남부권은 산지가 많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상수도 공급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수압이 낮아 주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고, 민원이 생기면 대부분 저희 센터로 전달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24시간 불철주야로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 민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때때로 지역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직원들은 힘듦보다는 오히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원대영 대리가 기억에 남는 일화를 소개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민원인께서 평소보다 과도한 수도 요금이 부과되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정 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민원인이 민간 업체에 의뢰해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저희가 현장 경험을 살려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누수는 아니었고, 간단한 조치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수도통합운영센터는 고객 맞춤형 수질검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센터는 네 개 지자체의 24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등 7개 항목에 대한 주간 자체 분석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평균군은 2023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전국 2위로 도약했다. 현재는 전국 1위를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밝은 내일

수도통합운영센터는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의 날 그림 공모전’을 열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했다. 수상작은 전시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수돗물 가치 알리기’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평창 애미보육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수시설 견학과 체험 학습을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수돗물 생산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정수시설의 안전성과 수

물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대표 축제인 ‘제49회 정선 아리랑제’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약 11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단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과 게임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수도통합운영센터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수 발생량은 줄고 유수율은 높아지며, 원가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노후관 교체로 적수와 단수 발생이



줄어들어 주민 만족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실시간 물 사용량 산정을 통해 누수량 파악, 사용량 분석, 취약 지점의 집중 관리 등 체계적인 누수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확한 검침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검침량과 요금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도통합운영센터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은 강원 남부권 지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도통합운영센터의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기대한다.

Mini Interview



장현욱 센터장

수도통합운영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통합운영센터 4개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별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뢰와 소통이 살아 있는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힘을 계획합니다.



한명수 차장

강원도 출신이라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도 크고요. 상수도 운영은 공단 내에서도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이번 근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께 더 질 좋은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수도통합운영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환경과 여행 모두를 충족하다 에코투어리즘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은 일상에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여행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이슈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에코투어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과 여행 모두를 즐기는 '에코투어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참고 자료. 환경부 블로그, 에코엔퓨처

여행의 이면에 존재하는 환경파괴

여행을 떠날 때 저마다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아름다운 풍경, 새로운 경험, 맛있는 음식 등 여행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에코투어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전 세계 여행자 숫자가 13억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여행자의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행자가 증가하면 그 이면에는 환경 및 생태계 파괴라는 이슈가 존재한다. 숙소와 식

당, 즐길거리 등 사람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은 훼손되고 그곳에 살던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은 이런 생태계 파괴의 현실에서 자연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책임 있는 여행이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으로, 1960년대부터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다, 에코투어리즘

우리말로 ‘생태관광’이라고도 하는 에코투어리즘은 ‘생태학(Ecology)’과 관광업(Tourism)의 합성어로,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자연과 문화를 보고 배우는 친환경 여행이며 생태계 보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코투어리즘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잘 보존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정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인기를 얻으며 너무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자 아예 6개월간 섬을 폐쇄하고 환경 복원을 한 후 재개장 한 일이나 마차와 전기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한 스위스 체르마크의 활동들이 에코투어리즘의 일환이다.

세계 에코투어리즘 명소

📍 말레이시아 타만 네가라

말레이시아의 타만 네가라(Tarman Negara)는 1억 3천만 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만 네가라는 오래전부터 '정글 트레킹'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하늘 높이 솟은 뾰족한 밀림 사이를 걷는 트레킹, 박쥐가 서식하는 동굴 탐험, 밤이 되면 환상적인 반딧불 체험, 역동적인 레프팅 체험까지 정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공원 내에서는 환경 보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행을 통해 몰랐던 환경 이야기를 듣고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은 친환경 리조트 및 에코 롯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관광 수익은 야생 동물 보호와 열대우림 보전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관광객이 많을수록 생태보호가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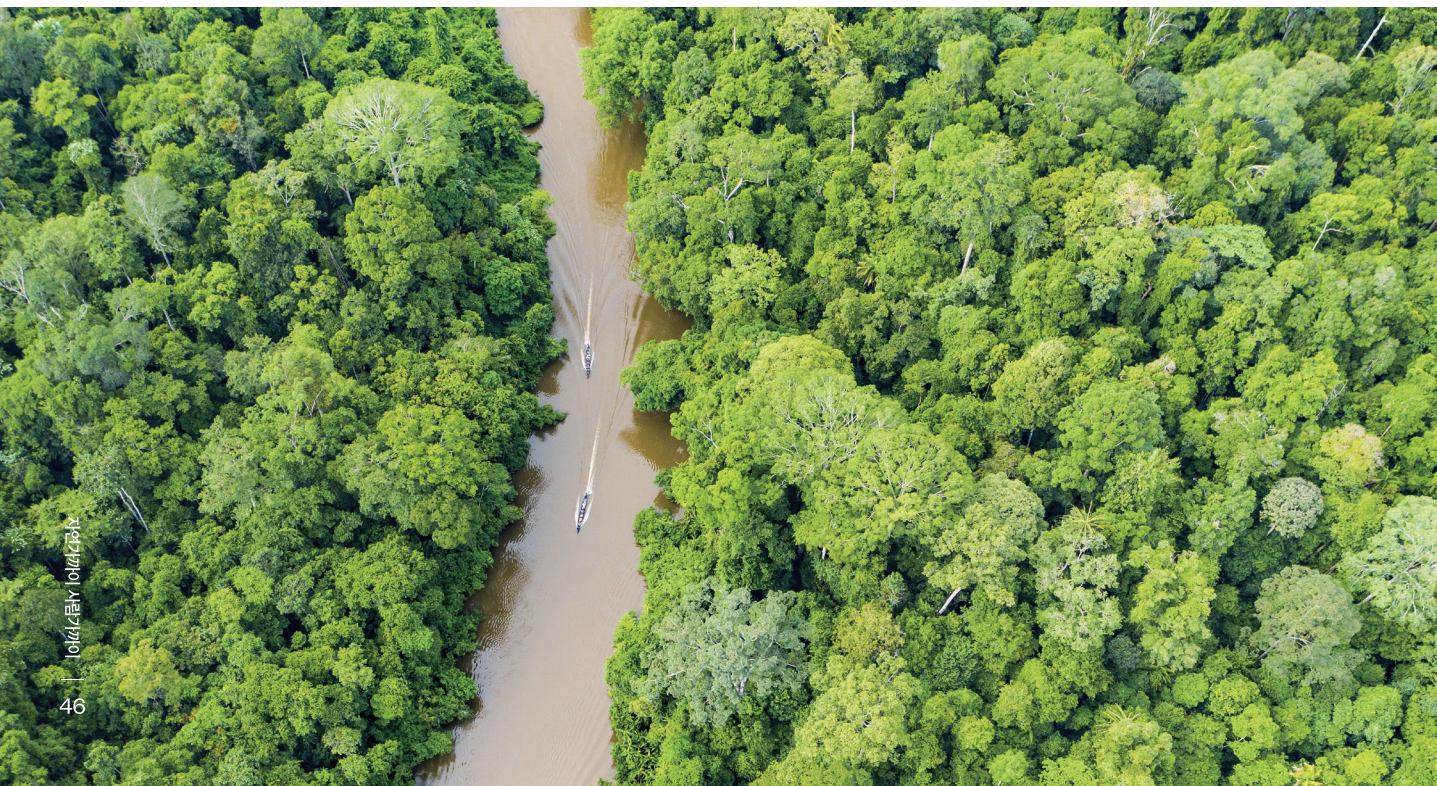
📍 라오스 루앙남타, 남하 트레킹

라오스 북부 루앙남타(Luang Namtha) 지역은 대표적인 에코투어리즘 명소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가이



드로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며, 환경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특히 트레킹 수익의 일부는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며, 숙박 또한 전통마을 가옥을 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있는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 스위스 알프스 트레킹

스위스 에코투어리즘은 하이킹이다. 스위스 전역에 하이킹로가 연결되어 있어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는 스위스가 가진 천혜의 여행자원인 ‘칸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스위스 행정구역 단위의 중심으로 총 26개의 칸톤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충청도와 같은 도(道)의 개념이다. 각 칸톤이 저마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풍경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스위스는 지구의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길을 따라 걸으며 환경파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글레시얼 에듀케이트 패스(Glacial Educate Path)’ 여행 프로그램, 비엘·비엔느 호수에서 운영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쌍둥선 모비켓 등 환경을 보존하는 여행프로그램도 계속 개발 중이다.

📍 호주의 에코투어리즘 전략

영화의 배경이 된 높이 348m의 울룰루 바위가 있는 카타추타 국립공원,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를 보호하고 있는 론파인 코알라 보호구역, 피너클스 사막으로 유명한 남봉 국립공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호주는 에코투어리즘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호주정부는 1994년, 국가 차원에서 에코투어리즘 전략(The National Ecotourism Strategy)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에서는 산호초 보호를 위해 친환경 선박만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투어 전 반드시 산호초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호주는 에코투어리즘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친환경 여행지와 숙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하고 있다. 트레킹, 캠핑, 해양 생태 보호 등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에코투어리즘 전략 수립 이듬해인 1955년 관광수입은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넘었으며, KOTRA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약 470억 달러(약 50조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자유로운 실천, 주도적인 관심 자주적관람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가치소비...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깊어지는데 실천은 쉽지 않다. 버려진 물건에 어떤 손길을 더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전라북도 군산에는 가치 있는 소비를 향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공간이 있다. 환경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복합문화공간, '자주적관람'의 환경철학을 들어보자.

글 함유진



자원순환의 실천 플랫폼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의 조용한 골목, 입구에 놓인 입간판이 이곳이 제로웨이스트샵이자 전시관인 '자주적관람'임을 알린다. '자유롭고 주도적인 문화생활'을 뜻하는 상호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곳이 지향하는 성격이 오롯이 담겨 있다. 내부로 들어서면 구획마다 다양한 이색 소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천연 수세미부터 대나무 휴지, 코끼리 똥 메모지까지. 정성스레 고른 듯한 친환경 물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다.



카운터 근처에는 자원순환 물품을 수거하는 박스가 놓여 있다. 플라스틱 병뚜껑, 살균팩·멸균팩, 폐전선, 크레파스 등 다양한 품목을 분리해 담을 수 있도록 색색의 상자가 마련돼 있어, 마치 작은 분리수거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모인 물품들은 다시 쓰임의 가치를 찾아 재활용되거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자주적관람'은 덜 소비하고 잘 사용하는 삶을 제안하는 환경 스퍼커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물건이 매개가 되어, 자주적인 환경보호 실천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문화와 공감을 나누는 열린 공간

문과 문 사이, 또 다른 입구를 지나면 전시관이 나타난다. 한 칸짜리 방의 벽면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한쪽에는 관람객들이 남길 수 있도록 방명록이 준비되어 있어, 앞선 흔적들과 감상을 공유해볼 수 있다.

이 공간은 한 달 주기로 전시가 바뀐다. 지역 작가들의 개인전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에게 열려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예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대관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주적관람’은 이처럼 다양한 지역 예술 활동을 응원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자주적관람’의 열린 운영 방침은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기획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 덕분에 매달 새로운 시선과 감성이 공간을 채우며, 올해의 전시 일정이 연초부터 뻑뻑하게 채워질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1 자주적관람 매장
- 2, 3 자주적관람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 3 업사이클링 교육 결과물
병뚜껑업사이클 튜브짜개
- 4 자주적관심 교육장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주적관심’

‘자주적관람’의 최정은 대표는 환경교육사 강사로도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자원 순환의 과정을 쉽게 풀어 전달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환경교육과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 ‘자주적관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반인에게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업사이클링)’이라는 실천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병뚜껑을 가공해 키링을 만들거나, 에어캡, 폐비닐 지갑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해 그 첫걸음을 편하게 내디딜 수 있다.

과거 향초 공예 사업을 하며 공예와 친환경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최정은 대표. 군산에 없던 ‘작은 미술관’을 구상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로웨이스트 샵과 전시관, 체험관이 문을 열게 되었다. ‘자주적관람’이 군산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지금도 그는 잠시 들른 손님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전하고자, 환경문제를 화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넨다. 제로웨이스트가 트렌드를 넘어, 삶에 스며드는 습관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바람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은 참여로 확산되어, 개인의 실천이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자주적관람

- 📍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5길 21-4
- 🕒 영업 시간: 11:00~19:00 (월, 화 휴무)
- ☎ 전화: 010-4240-8508
- 📱 인스타그램



자주적관심

- 📍 주소: 전북 군산시 중정길 7
- 🕒 예약 운영
- ☎ 전화: 0503-4240-8508



약 2.2km

장태산 자연휴양림



약 1km

성지순례길 유래비



약 0.8km

시계능선



약 2.3km

막현리 삼거리



진산 성지성당

진산 성지순례길, 심보다 깊은 회복

연둣빛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 속 휴가를 떠올리면 교통 체증과 인파가 먼저 떠오르지만, 고요한 자연을 따라 걷는 여행도 있다.

올여름은 도보 순례길 위에서 숲의 숨결을 느끼고, 천천히 걷는 발걸음 속에 나를 비워보는 시간은 어떨까.

글. 함유진 사진.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가유산청, 충청남도 누리집, 장태산자연휴양림



음성안내 QR코드

장태산에서 시작하는 순례의 첫발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진산 성지성당까지 이어지는 약 6.3km의 길에는 순교자들의 시간과 그 시대의 이야기가 고요히 흐른다. 여름의 장태산은 입구부터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하늘을 매우며 선명한 초록빛 숲길이 펼쳐진다. 순례길은 인위적 구조물 대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조성되었고, 자작나무, 돌계단, 징검다리 등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무더위 속 산행을 상상했지만, 울창한 나무숲이 만든 그늘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자주 스쳐 간다. 이정표를 따라 걸으면 자작나무 숲 사이로 성지순례길 유래비가 보인다. 신해박해의 원인이 된 진산사건에 대한 기록이 글로 남겨져 전해진다. 진산사건은 1791년 조선 최초의 천주교 박해로, 유교식 제사를 거부한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사건이다. 이곳에서 순교자들은 마지막까지 굳은 신념을 지키며 형벌을 견뎠다. 보존된 자연물에는 신자들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조선 시대 천주교인들의 왕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다.



숲을 지나 푸른 경계의 길

마을 방향으로 숲길은 계속 이어진다. 가파른 구간에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오를 수 있고, 곳곳에 놓인 벤치와 평상에 앉아 자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도 있다. 대전과 금산의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 시계능선에 닿으면, 끝없이 펼쳐지던 숲길의 끝자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능선을 따라 10분 정도 산길을 내려가고 평지를 지나면, 대전을 벗어나 금산의 막현리 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길의 초입에 세워진 안내판을 통해 행정구역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대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걸으면 저 멀리 순례길의 종착점인 진산 성지성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성지에서 머무는 마음

진산 천주교 역사의 서막을 연 진산 성지성당에서 걸음을 멈춘다. 외관은 소박한 규모지만,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이곳은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계단을 올라 정면의 돌담 위에 손을 맞잡은 순교자상이 눈에 들어온다. 세 복자와 그들의 어머니가 정답게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성당 마당에는 순교자를 기리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고, 그 곁에는 평온한 얼굴의 성모상이 마치 이 모든 시간을 지켜보듯 고요히 서 있다. 자연과 신앙, 그리고 사람의 발걸음이 함께한 이 길의 여정 위에 깊은 회복의 시간이 깃들어 있다.

주변 가볼 만한 곳



진산 역사문화관

진산 성지순례길의 배경이 되는 진산사건의 역사를 보존한 장소다. 과거 순교자들의 발자취와 함께 진산의 문화 변천사를 알 수 있다.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실헬로 197



지구별그림책마을

한국 최초의 그림책 마을에서 머물며 힐링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폭넓은 주제의 그림책이 구비되어 있다.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하늘물빛정원

사시사철 피고 지는 수목과 야생화 사이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글램핑장도 함께 운영되어 추억을 만들기에 좋다.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검한1길 156

한국환경공단
푸루의 사계절툰

-물 발자국과 수질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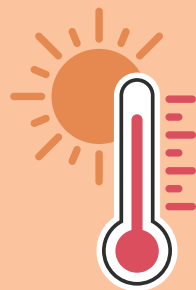
일러스트 구희





물 오염 예방과 절약하는 꿀팁!





여름철 이중 위험! 폭염 속 내 몸을 지켜라

청명한 하늘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활기를 더하는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그러나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신체는 점차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더위를 피하려 냉방기구에 의존하다 보면, 이번엔 냉방병과 같은 이상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열기와 냉기가 교차하는 여름철, 온열질환과 냉방병을 예방하는 실내외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자.

글: 함유진 자료 출처: 안전보건공단, 서울대학교병원

몸이 보내는 뜨거운 경고, 온열질환

플레이리스트를 활기찬 곡들로 재정비하고, 바다나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 아래,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일사병

대표적 온열질환인 '일사병'은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상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면 다량의 땀을 흘리게 되고, 이때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체온이 38~40℃까지 상승하면서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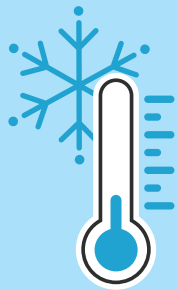
열사병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체온이 40℃ 이상으로 상승하고 체내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중추 신경계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땀이 나지 않고, 고열, 경련, 구토, 의식변화,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며, 장기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열사병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목, 겨드랑이 밑, 대퇴부 밑에 얼음주머니를 대어 체온을 낮춘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된다.

?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다. 야외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물을 자주 마셔 체내수분을 보충한다. 또한, 틈틈이 그늘에서 쉬며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좋다. 운동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한다.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전해질 음료를 섭취한다.





삼성안내 QR코드



온도차가 깨트린 몸의 균형, 냉방병

여름철 온열질환 못지않게 자주 걸리는 질환이 냉방병이다. 냉방병은 냉방 기구로 인해 실내의 온도차가 5℃ 이상 나는 환경에서 신체가 급격한 기온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상기도 감염 증상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인후통, 근육통, 복통 등이 있다.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여름감기'로 불리기도 한다. 냉방기구 사용을 줄이고, 실내 적정 온도인 24~26℃를 유지하며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며칠 내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레지오넬라증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세균들로 오염되어서 이 세균들이 냉방기를 통해서 빌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세균을 '레지오넬라'라고 하며, 일종의 감염성 질환이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냉방기 점검과 필터 청소가 필수적이다.

밀폐 건물 증후군

시원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두통을 호소하며 눈, 코, 목 등이 건조해져 따갑거나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규칙적인 환기를 통해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해줘야 한다.



냉방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다소 덥더라도 2~4시간마다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는 것이 좋다. 냉방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필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한다. 또한, 실내에서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고 잠잘 때는 배를 따뜻하게 덮고 잔다.

제철 식재료로 더위를 이겨내자!

온열질환 예방의 한 수, 전복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인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해 원기회복에 적합하다. 특히 아르기닌과 글리신 등 아미노산이 몸의 회복을 도와 기력저하가 쉬운 여름철에 더욱 효과적이다. 전복은 뒤집었을 때 몸체를 오므리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냉방병을 물리치는 슈퍼푸드, 토마토

수분 함량이 약 95%에 달하는 토마토는 여름철 부족해지기 쉬운 체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준다. 또한 라이코펜,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냉방병으로 인한 무기력함이나 두통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토마토는 들었을 때 무겁고 단단하며, 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신선하다.



K-eco NEWS

한국환경공단, 산불 피해 복구와 조직혁신 논의

한국환경공단, '핵심 리더 워크숍' 개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영덕군에서 개최한 '상생협력·소통강화·기관혁신을 위한 2025년도 핵심 리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내부 회의가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돕고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1일차 '산불피해지역 피해 복구 및 자원 활동' ▲2일차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전략회의'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의 상처가 남아 있는 영덕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연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19일 첫날, 임상준 이사장은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을 방문해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5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농가 복구와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신속한 피해복구가 필요했던 과수원 폐파이프 처리, 고사목 제거와 함께 지역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했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튿날인 20일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미래 청사진인 '그린 리부트(Green Reboot)'를 중심으로 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글로벌 전략 강화 ▲SPC 설립 필요성 ▲조직 재설계 방안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참여한 주요 간부 80여 명이 분임 토의를 통해 조직 변화의 동력과 실행전략을 직접 모색하는 실질적 참여와 실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임상준 이사장은 "우리는 영덕의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우리 공단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현장에서 보여준 상생의 정신과 조직혁신을 위한 소통, 이 두 기둥으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과 조직, 국민과 미래를 잇는 실천적 리더십의 방향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환경 혁신의 중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비점 오염관리 위한 전문 센터 본격 가동

6월 7일부터, 연중 상시 상담 가능한 ‘비점컨설팅 센터’ 본격 운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비점오염원 관리 국민 행정 서비스와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비점컨설팅 센터를 6월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하천·수계로 유입된 오염물질 부하량의 약 70%는 비점오염물질로서, 녹조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수적이며, 공단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적정성 기술검토와 우수 저감시설 보급을 위한 성능검사 수행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단 비점컨설팅 센터는 설치신고 사업자와 중소 물기업, 지자체등에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등 전문 상담을 통한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소했다. 특히, 고시 개정에 따른 자연형 현장시공시설 신규 검사와 판정서 유효기간 갱신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상담 업무가 많은 다음 달까지를 집중 운영 기간으로 지정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기술검토 ▲성능검사 및 기존 판정서 갱신 지원 등에 대해 상시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및 컨설팅 이력을 관리해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비점오염원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용 물환경이사는 “비점컨설팅 센터 운영으로 기업 행정 부담이 감소되고 국민의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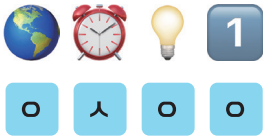
푸루·그루와 함께 푸는 '이모지 퀴즈' 이벤트

한국환경공단 사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년 여름호,
잘 읽어 보셨나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년 여름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이모지 퀴즈

01.



이모지 퀴즈 01

- 힌트①**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불필요한 전등과 조명을 끄는 실천
힌트② 전력낭비와 빛 공해를 줄이고, 탄소배출까지
절감할 수 있는 뜻깊은 친환경 행동(지면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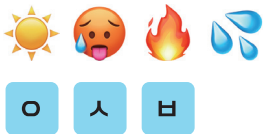
02.



이모지 퀴즈 02

- 힌트①** 나라 전역에 하이킹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곳
힌트② 천혜의 여행 자원인 '칸톤'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지면 47쪽)

03.



이모지 퀴즈 03

- 힌트①** 대표적인 온열질환,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
힌트②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면 발병
(지면 54쪽)



이모지 퀴즈 정답 보내는 방법



방법 1 독자엽서
정답과 함께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를 읽은
소감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준다.



방법 2 웹진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접속해 '독자 참여'코너를
찾아 정답을 적는다.

응모 마감 : 7월 20일까지
당첨자 발표 :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통보



QR 코드를 클릭하면
웹진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5 SUMMER SPECIAL EVENT

EVENT 01

친환경 라운지

30~31쪽에 실린
<친환경 라운지> 코너의 친환경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음료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
2025keco@gmail.com

EVENT 02

이모지 독자퀴즈

58쪽에 실린 '이모지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
웹진 독자 참여 코너 또는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EVENT 03

독자의견

여름호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
이메일(2025keco@gmail.com)이나,
독자엽서에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자연가끼이
사람가끼이



웹진(www.kecowedzine.kr)과
QR 코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봄호의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자연가끼이 사람가끼이>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친환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여름호 이벤트는 위의 3가지입니다. ◆

독자의견

요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며 내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때' 라는 마
음 보다는 '별거 아니지만 나라도 지켜야
지'라는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지속가능
한 소비를 독려하는 기업에도 박수를 보내
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지구를 살릴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_ 박O현

책을 사랑하는 모임인 독서 동호회 '북치고
잔치고' 기사를 읽으면서, 저 역시 책을 좋
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진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 외에도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
원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
미 있는 모임인 것 같아요. _ 김O경

※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엽서 정답자

5월의 장미 | 경기도 의정부시
리본트리 | 인천광역시 남동구
크리스탈 | 광주광역시 북구
테도리 | 부산광역시 사하구
벽창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잘될거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이형님 | 서울시 서대문구
참깨 | 경기도 의정부시



푸루와 그루 여름 모빌 만들기

시원한 수박화채가 생각나는 여름입니다.
푸루와 그루의 여름 모빌이 사랑살랑.
여름 기분에 흠뻑 빠지게 해주지 않을까요.

준비물

가위, 칼, 색칠 도구, 실 또는 노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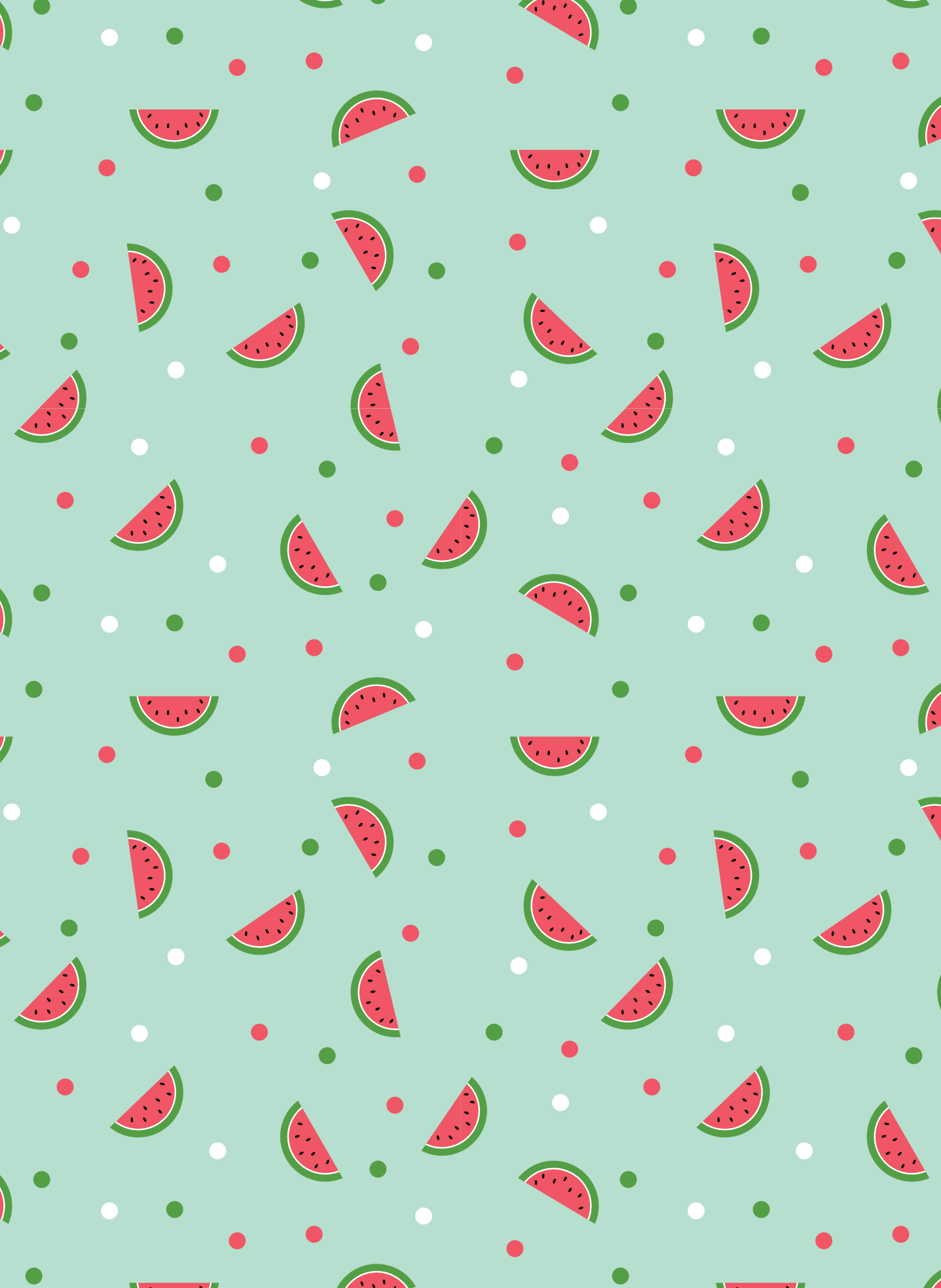
만드는 방법

- ① 도안을 오리기 전에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 ② 도안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 ③ 모빌을 연결할 구멍을 뚫어주세요.
- ④ 차례대로 끈으로 연결해 주세요.



▶ 제작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주소

주소변경, 신규구독 및 구독중지를 희망할 경우, 작성해 주십시오.

☐ 주소변경(전, 후 기재) ☐ 신규구독 ☐ 구독중지

※ 주소 : (변경 전)

(변경 후)

※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독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발송 시 수취인명을 '구독자님'으로 일괄 처리해 발송합니다.
또한, 경품 당첨 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되오니
다시 한번 주소 확인 후 발송 부탁드립니다.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 06. 10~

서인천 우체국
승인 40091호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국민소통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담당자 앞

2 2 6 8 9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1. 이번 호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2.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4.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모지 퀴즈 정답

닉네임이 없는 경우 당첨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시는 분의 닉네임을 꼭 적어주세요.

닉네임

01.    

☐ ☐ ☐ ☐

01.

02.     

☐ ☐ ☐

02.

03.    

☐ ☐ ☐

03.



이모지 퀴즈의 정답을 표기하여 엽서를 보내주세요. 엽서 마감은 2025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엽서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K-eco 웹진 바로가기



ISSN 2586-8004